



노에시 헥터



지크 스프루일

타이거즈 외국인 성공시대 노크

노에시 헥터(30)와 지크 스프루일(29)이 타이거즈 출신 외국인 투수 성공시대를 다시 연다.

KIA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들로 여러 차례 화제를 모은 팀이다. 영입 자체만으로 화제가 된 경우도 있다. 메이저리그 21승에 빛나는 호세 리마, '퍼펙트 사나이' 필립 험버가 있었다. 두 선수 모두 명성만큼의 성적은 남기지 못하고 갔지만 뜨거운 이름이었다.

역사를 남긴 이들도 많다. V10의 역사에는 아킬리노 로페즈가 있었고 세스 그레이싱어도 타이거즈 대표 외국인 투수로 남아있다. 일본 진출 후 터진 약물 스캔들로 오점을 남겼지만 다니엘 리오스도 있다. 믿고 쓰는 타이거즈표 외국인 투수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앤서니, 아센시오의 마무리 시합이 실패로 끝났고 지난해 스티븐 이 앤서니(11승·2012년)에 이어 3년 만에 외국인 선수 10승을 거둘 정도로 선발진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올해는 능력과 기대치가 다르다. KIA는 '빅리거' 헥터를 잡는 데 성공했고, 프

노에시 헥터·지크 스프루일 시범경기 후투

헥터, 직구·커브로만 3이닝 5탈삼진 1실점 "피칭 80% 수준"

지크, 최고 구속 150km·제구·변화구 짝꿍 "좀 더 보완할 것"

리머 12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지크도 영입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각각 한 차례 등판했던 두 사람은 주말 벵센과의 시범경기에 나란히 출격해 한국에서의 첫 실전을 깔끔하게 소화했다. 12일 먼저 나온 헥터는 1회부터 탈삼진 두 개를 포함해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2회 볼넷과 2루타로 실점은 했지만 3회 역시 삼자범퇴로 처리하면서 3이닝 1피안타 5탈삼진 1실점을 남겼다. 아직 100%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더 높아진다. 헥터는 히로시마와의 연습경기에서 직구 위주의 피칭을 하며 발목을 숨겼다.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도 직구(최고 149km)와 커브만으로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냈다.

올 시즌 목표를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을 피하면서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헥터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마운드에 오르기 전에 이대진 코치와 직구와 커브만 던지기로 했고, 직구 위주의 피칭을 했다. 몸 상태는 100%에 가깝고 피칭은 80% 수준으로 했다"며 "몸쪽 승부가 많았는데 바깥쪽은 한국 타자들이 커트를 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몸쪽으로 먼저 넣은 다음에 상대 타자들에게 혼란을 주려고 했다. 그게 잘 먹혀들었다"고 밝혔다. 지크는 동료들이 기대를 하는 비장의 카드다. 캠프에서부터 마서는 구위와 다양한 변화구로 "큰 일 낼 것 같다"는 평가를 받

았다. 13일 선발을 맡은 지크는 일단 시원한 직구로 상대를 압도했다. 195cm 큰 키에서 내리꽂는 직구는 이날 최고 150km를 찍었다. 최저 구속도 145km. 과감하고 시원한 피칭과 함께 몸쪽, 바깥쪽을 공략하는 세밀함도 눈에 띄었다. 이날 지크는 52개 중 34개의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집어넣었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의 변화구도 짝꿍했다. 3회 2루타 2개로 1실점은 했지만 추운 날씨에도 빠르고 안정된 피칭을 보여줬다. 지크는 "2회까지는 매우 좋았다.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섞어 던졌는데 생각대로 원하는 곳에 구사한 것 같다. 하지만 3회 던져야 할 곳에 못 던진 게 실점으로 이어졌다. 좀 더 분석하고 연구, 보완해 가야 할 것 같다. 경기장 환경이나 팬들의 응원문화 모두 편안하고 마음에 든다. 앞으로 등판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9-8로 시범경기 첫 승을 기록했던 KIA는 13일 불펜진의 난조로 3-12 역전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상화 여 500m 세계4위로 시즌 마감

부상 방지 위해 월드컵 파이널 출전 안해

'빙속여제' 이상화(스포츠포토)가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여자 500m에서 세계 랭킹 4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13일(한국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의 티알프 슈타디온에서 치러진 2015-2016 ISU 월드컵 파이널 여자 500m 결과 1, 2차 레이스에서 모두 은메달을 차지한 헤더리치드슨(미국)이 랭킹 포인트 848점을 쌓아 세계랭킹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여자 500m 1, 2차 레이스에서 모두 5위에 오른 장홍(중국)이 랭킹 포인트 842점으로 세계랭킹 2위를 차지한 가운데 1, 2차 레이스에서 모두 우승한 브리트니 보(미국·785점)가 3위로 시즌을 마쳤다.

부상 방지 차원에서 이번 월드컵 파이널



에 출전하지 않은 이상화는 랭킹 포인트 680점으로 최종 4위로 이번 시즌을 끝냈다. 이상화는 지난 달 러시아 톨스토야에서 열린 2016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우승한 뒤 무릎 보호를 위해 '시즌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시즌 6차례 월드컵 시리즈에서 1~4차 대회까지 4개 대회에만 출전한 이상화는 4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거는 뛰어난 성적을 바탕으로 세계랭킹 4위로 이번 시즌을 끝냈다. /연합뉴스

박병호 두 번째 멀티히트...5경기 연속 안타

김현수 결장 코리안 더비 불발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두 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하며 5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박병호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새러소타 에드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첫 타석부터 안타가 나왔다. 박병호는 1회초 1사 2루에서 볼티모어 우완 우발도 히메네스를 공략해 중견안타를 쳤다. 2루 주자 카를로스 쿠엔틴이 3루에서 멈춰 타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박병호는 7일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시작한 안타 행진을 5경기로 늘렸다. 다음 타석에서 멀티 히트도 완성했다. /연합뉴스

박병호는 3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전 안타를 생산했다.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전에 이은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두 번째 멀티 히트다. 박병호는 6회에 선두타자로 나서 볼티모어 좌완 잭 브리튼을 공략했으나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박병호는 7회초 대타 미치 가버와 교체됐다. 박병호의 시범경기 타율은 0.316에서 0.364(22타수 8안타)로 올랐다. 2경기 연속 안타를 쳤던 볼티모어 외야수 김현수가 이날 휴식을 위해 '코리안 더비'는 펼쳐지지 않았다. 이날 볼티모어는 1회말 터진 마크 트럼보의 2타점 적시타와 6회와 7회에 나온 오드리 페레스, 스티브 톨레슨의 투런 홈런을 앞세워 8-1로 승리했다.

전날까지 2루 10패를 당한 볼티모어는 마침내 시범경기 첫 승을 신고했다. /연합뉴스

불굴의 최민정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2년 연속 개인 우승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떠오른 최민정(서현고)이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년 연속 여자부 개인종합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최민정은 13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치러진 대회 셋째 날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1초933의 기록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영국의 엘리스 크리스티(1분31초980)를 0.047초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1,000m 결승에서 초반부터 선두권으로 치고 나선 최민정은 6바퀴를 남기고 1위 자리를 차지한 뒤 끝까지 크리스티에게 추월을 허용하지 않고 금메달의 기쁨을 맛봤다.

최민정의 우승으로 한국 남녀 대표팀은 이번 대회 개인 종목 첫 금메달을 얻었다.

최민정은 이어 치러진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 6위를 차지, 랭킹포인트 66점을 확보하며 전날까지 선두였던 마리안 생헬레(캐나다·63점)를 3점 차로 따돌리고 개인종합에서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한국 선수구 국내에서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2001년·2008년·2016년)에서 개인전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은 최민정이 처음이다.

최민정의 종합 우승은 극적이었다. 1,000m에서 우승하며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마련한 최민정은 3,000m 슈퍼파이널에서 '끝장 승부'에 나섰다.

최민정은 레이스 초반 무리하게 추월에 나선 중국의 최준위의 스케이트날에 걸려 넘어지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순식간에 최하위로 밀린 최민정은 침착하게 레이스를 이어갔고, 레이스 종반까지 중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며 6위로 경기를 마쳐 랭킹 포인트 3점을 확보했다.

치열한 랭킹포인트 경쟁을 펼친 생헬레도 5위로 5점을 추가하는 데 그쳐 최민정은 2년 연속 개인종합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다만 1,000m 경기에 출전한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한국체대)와 노도희(한국체대)는 8강에서 탈락, 랭킹포인트 상위 8명만 출전하는 3,000m 슈퍼파이널에 출전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6 KB 세계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대회 여자 1000미터 결승전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 최민정이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뒷심의 이보미

JLPGA 요코하마 타이어 토너먼트 4차례 연장 끝 우승

이보미(28·코카콜라재팬)가 일본여자프로골프 투어 요코하마 타이어 토너먼트 PRGR 레이디스컵(총상금 8천만엔) 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13일 일본 고치현 고난시 도사 컨트리클럽(파72·6천21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기록, 최종합계 8언더파 208타의 성적을 냈다.

가시와바라 아스카, 이지마 아카네(이상 일본)와 함께 동률을 이룬 이보미는 4차 연장 접전 끝에 연장 네 번째 홀에서 혼자 버디를 잡아 두 명의 일본 선수를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천440만엔(약 1억5천만 원)이다. 지난해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7승을 거두면서 상금왕에 오른 이보미는



2016시즌 두 번째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을 달성했다. 이날 우승으로 2012년 일본 진출 이후 16승째를 거둔 이보미는 지난해 상금 2억3천49만엔(약 22억원)을 벌여 남녀를 통틀어 일본 골프 역사상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연합뉴스